

강직성 척추염 환자 말초혈액 단핵구의 glucocorticoid receptor β mRNA 발현 증가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알레르기류마티스 내과
이창근*, 이은영, 신정현, 조유숙, 유빈, 문희범

배경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대조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제가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 근래 glucocorticoid receptor β (GCR β)의 발현과 스테로이드 반응성의 상관관계가 스테로이드 저항성 천식과 궤양성 대장염에서 보고된 바 있다.

목적 : 강직성 척추염 환자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말초 혈액 단핵구에서 GCR β 의 발현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건강 대조군(n=19),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n=11),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n=21)의 말초혈액 단핵구를 분리하여 RNA를 역전사 한 후에 반정량적 RT-PCR을 이용하여 GCR β messenger RNA (mRNA)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결과 : GCR β mRNA의 발현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군[8.2 arbitrary unit(mean value), range 0.7-22.1]에서 건강 대조군[3.0, range 0.7-13.1]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군에[2.3, range 0.8-7.5] 비해 의미 있게 증가되어 있었다.

결론 : GCR β mRNA의 발현 증가는 강직성 척추염의 낮은 스테로이드 반응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염증성 근염에서 자기공명영상의 임상적 의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 영상의학과¹, 재활의학과², 진단병리과³
고재현*, 홍석주¹, 안홍준, 안중경, 진찬홍, 차호식, 안중모¹, 김현숙², 서연림³, 고은미

목적 : 염증성 근염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진단적 접근으로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이 시행된 예에서 MRI검사를 근생검 및 임상적 소견과 비교 분석하여 근염의 진단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95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염증성 근병증이 의심된 환자 중에서 MRI를 시행 받은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임상 및 근생검 소견과 MRI 결과를 후향적인 연구방법으로 비교하였다. 촬영 기법에 따른 신호강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2강조영상(T2), 지방억제 후 조영증강된 T1강조영상(FSAT T1 CE)에서 정상 근육에 대한 병변 근육의 대조도와 근육 침범 정도를 객관화하기 위해 주위 파하지방층의 신호강도에 대한 근육의 신호강도비를 조사한 후 근생검상 근염의 근육 침범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 환자는 각각 남자 5명, 여자 15명, 연령 분포는 21 ~ 74세 (median: 46.5세)이었고, 다발성 근염 11명, 피부근염 6명, 국한성 결절성 근염 2명,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확진된 환자 1명 이었다. 가장 심한 침범을 보인 근육의 FSAT T1 CE 신호강도비가 근생검상 근염의 심한 정도와 통계학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p value 0.0161), 근생검을 시행한 근육부위의 FSAT T1 CE 신호강도비도 근생검의 근염의 심한 정도와 통계학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value 0.0042).

결론 : FSAT T1 CE의 신호강도비와 근생검에서의 근 침범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MRI가 근염의 심한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염증성 근염의 진단 및 추적관찰 시에 MRI가 중요한 진단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